



뚝스나, 막스나 21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제3회 광주시핸드볼협회장기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가 열렸다. 여중부 성덕중과 영천중 결승전에서 천수민(성덕중)이 슈트를 시도하려하자 영천중 선수들이 밀집수비를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男 효동초·女 고실초 핸드볼 3년연속 우승

광주시협회장기 겸 교육감배 남녀중등부 영천중·성덕중 정상 다음달 전국대회 광주대표 출전

효동초와 고실초가 제3회 광주시협회장기 겸 제13회 광주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 남녀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효동초와 고실초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광주시협회장기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우승기를 학교에 영구 보관하게 됐다. 효동초는 21일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초등부 결승 토너먼트 결승에서 수완초를 9-8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효동초는 지난달 17~18일 열린 예선리그에서 4전승으로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경기 전날 주전 에이스 최정동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효동초는 수완초에 전반을 4-5로 내줬으나 후반 극적으로 8-8 동점을 만들고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효동초는 연장전에서 윤영로의 결승 골과 골키퍼 오상엽의 슈퍼 세이브에 힘입어 9-8,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고실초, 염주초, 효동초가 리그전을 펼친 여자 초등부에서는 고실초가 염주초를 5-0, 효동초를 5-1로 꺾고 2연승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박유리(고실초)는 혼자 8골을 터트리는 맹활약을 펼치며 팀 우승을 견인했다.

남중부에서는 영천중이 성덕중을 12-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여중부에서는 성덕중이 영천중을 7-5로 제압하며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우승을 차지한 남녀 초등부 효동초·고실초와 남녀 중등부 영천중·성덕중은 다음달 15일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윤영로(효동초)·박유리(고실초)·이용진(영천중)·천수민(성덕중)은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박세진(수완초)·이수민(효동초)·김연준(성덕중)·윤소정(영천중)은 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이도근 효동초 감독, 김동천 고실초 감독, 최준경 영천중 감독, 임종민 성덕중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광주시핸드볼협회는 이번 대회 각 종별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지도자상 수상자들에게 트로피와 장학금, 격려금을 부상으로 전달, 사기를 진작했다.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은 "스포츠 클럽 취지에 걸맞게 핸드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 친구들과 함께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을 다지며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인 뜻 깊은 자리였다. 다음달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광주 핸드볼의 자부심을 갖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달라며 "광주시핸드볼협회도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핸드볼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현, 청두오픈 와일드카드 출전...64위 소사와 1회전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143위·제네시스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청두오픈(총상금 109만6575달러)에 와일드카드를 받고 출전한다. 23일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이 대회 대진 추첨 결과 정현은 1회전에서

주양 소사(64위·포르투갈)와 만나게 됐다. 1989년생으로 정현보다 7살 많은 소사는 2016년 세계 랭킹 28위까지 올랐던 선수로 투어 대회 단식에서 세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다.

지난해 마이애미오픈에서 한 차례 만나 정현이 2-0(6-4 6-3)으로 이겼다. 정현과 소사의 경기에서 이진 선수는 2번 시드의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21위·캐나다)을 만난다. 2000년생 오제 알리아심은 지난해 이 대회 2회전에서도 정현과 만났으며 당시 오제 알리아심이 2-1(7-6 7-2) 5-7 6-

4)로 이겼다. 권순우(81위·CJ 후원)는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리는 ATP 투어 주하이 썬파이낸셜(총상금 93만1335달러) 예선에 출전했다. 22일 열리는 예선 2회전 헨리 라크소넨(110위·스위스)과 경기에서 이기면 본선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여자체조 단체전 동메달

100회 전국체전 광주 첫 메달

광주체고 여자체조 선수단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체조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땀다. 이번 체전에 출전한 광주시 선수단의 첫 메달이다. 광주체고 여자체조 선수단은 지난 18~20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단체종합 사전 경기에서 176.632점을 따내 1위 경기체고(200.132점), 2위 서울체고(184.332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동메달은 윤보은·김주리(이상 3년), 김미소(2년), 김혜령·채수빈·허유민(이상 1년) 등 6명이 합작했다. 남고부 문경록(3년)은 평행봉 결승에서 13.600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정원(1년)도 링 결승에서 13.500점을 따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도마 요정' 여서정(경기체고 2년)은 기계체조 여고부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여서정은 지난 20일 같은 대회 기계체조 여고부 도마 결승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1,2차 합계 평균 14.233점을 기록, 팀 선배 함미주(13.134점)와 김수빈(경북 포항체고 · 12.550점)을 따돌리고 2년 연속 우승했다. 이어 여서정은 마루운동 결선서도 13.233점으로 함미주(13.200점)와 개인종합 우승자인 이윤서(서울체고 · 13.000점)를 제치고 2연패를 달성하며 금메달을 추가, 전날 단체종합 우승포함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재영 있기에... 한국 여자배구, 아르헨 꺾고 2연승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중유럽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2일 일본 도야마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아르헨티나와 6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1(25-19 21-25 25-19 25-9)로 승리했다. FIVB 랭킹 9위인 한국은 아르헨티나(11위)와의 역대 전적을 9승 1패로 만들고 이번 대회에서 2연승 포함 3승(3패)째를 챙겼다. 지난해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아르헨티나에 0-3으로 패했던 아픔도 깨끗이 설욕했다. /연합뉴스

다가올 V리그에서 국내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공격을 이끌 이재영과 루시 아 프레스코의 활약이 빛난 한판이었다. 한국은 이재영(흥국생명)이 쌍둥이 동생 이다영(현대건설)과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23점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최근 국내 프로팀 흥국생명에 입단한 아르헨티나의 라이트 프레스코는 22점을 수확하며 V리그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한국은 이밖에도 김희진(IBK기업은행)이 서브 에이스 3개 포함 22점을 터트렸다. 에이스 김연경(터키 엑자시바시)은 12점을 거뒀다. /연합뉴스

이재영 없어도... 흥국생명, 순천대회서 인삼공사 꺾어

흥국생명이 한국배구연맹(KOVO) 컵대회 개막전에서 주포 이재영과 외국인 선수 없이도 KGC인삼공사를 손쉽게 꺾었다. 흥국생명은 지난 21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19 순천-MG새마을금고컵 여자 프로배구대회'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KGC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1(25-13 25-17 19-25 25-16)로 제압했다. 흥국생명은 주포 이재영이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국가대표 차출로 빠진 데다 교체 외국인 선수가 아직 팀에 합류하지 않아 '차·포'를 빼고 경기에 임했다. 어려운 승부가 예상됐으나 흥국생명은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외국인 선수가 출전한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예상 밖의 낙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흥국생명은 이한비(18점), 김미연(18점), 이주아(15점), 김세영(11점) 등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수확했다. 반면 올해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뽑히며 기대를 모은 KGC인삼공사의 발렌티나 디우프(16점)는 공격 성공률 26.41%에 그쳤다. 흥국생명은 1세트에서 팀 공격 성공률 42.42%를 기록하며 17.24%에 그친 KGC인삼공사를 간단히 따돌렸다. KGC인삼공사는 3세트에서 공격 성공률 44.44%에 9점을 책임진 디우프를 앞세워 한 세트를 만회했지만 더는 힘을 내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4세트에서 랠리 끝에 김미연의 오픈 공격으로 11-7을 만들었고, 센터 김세영의 블로킹에 힘입어 5점 차로 달아나며 승기를 굳혔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9월 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9월25일(수) 경남 해파랑길 10코스 트레킹,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9월 28일(토)
▲광주토포산악회 9월28-29일(토-일) 거문도, 백도, 28일 05:00 광주역, (문예후문,경유) ※다음카페 광주토포산악회 ☎010 3608 4267

10월 2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0월2일(수) 충북 제천 동산-작성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0월 5일(토)
▲광주호산회 10월5일(토) 설악산 설악동

10월 6일(일)
▲한길산악회 10월 6일(일) 충북 단양 도락산 산행, 상무정 05:00 무각사 05:10 광주역(e-마트 편의점) 05:20 비엔날레 05:30 각화동농산물공판장(그린장례식장 건너편) 05:40 ※ 다음카페 :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광주산이모산악회 10월 6일(일) 장병와왕산, 모아레포즈 06:00, 금호지구대 06:05, 무각사 06:10, 시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날레주차장 06:30 ※다음카페:광주산이모산악회 ☎010-3603-7718

10월 9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0월9일(수) 전북 완주 운암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 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0월 10일(목)
▲광주호산회 10월10일(목) 중국 서안/둔황/가옥관/칠채산 4박5일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광 박석규(610209-XXXXXX)
• 최후주속 : 나주시 대호길 70-6, 101호 (대호동, 대정노블랜드상가)
피상속인 광 박석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19노단 1360호로 신청하여 2019년 9월 1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9월 23일
• 상속인 : 박철환(901025-XXXXXX)
목포시 미항로 206, 105동 1007호 (육암동, 제인아파트)
• 신고기간 : 2019. 9. 23. ~ 2019. 12. 3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박철환의 주소

즐거움 문화상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그림, 찰나를 담다	8.28~9.29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문화가 있는 날 - 공연산책 앙상블 오데움, 장소의 음악	9.25(수)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김이문의 11시 클래식 산책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10.8화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아프리카 열정과 리듬을 ANYAFO	10.30(수) 7:30pm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나쁜 녀석들: 더 무비
2관	타짜: 원 아이드 잭
3관	힘을 내요, 미스터리, 비둘어진 집
4관	애드 아스트라
5관	나쁜 녀석들: 더 무비
6관	나쁜 녀석들: 더 무비
9관	에스터데이, 그것: 두 번째 이야기
7관	씨네커풀 타짜: 원 아이드 잭, 발명왕 볼트
8관	씨네커풀 그것: 두 번째 이야기, 유열의 음악앨범, 디스토리어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